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오르프 音樂敎育이 幼兒의 自己調節力에
미치는 效果



漢城大學校 敎育大學院

幼兒敎育專攻

金 美 英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오르프 音樂教育이 幼兒의 自己調節力에
미치는 效果

The Effect of Music Education Using Orff Method
on the Children's Self-control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幼兒教育專攻

金 美 英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오르프 音樂教育이 幼兒의 自己調節力에
미치는 效果

The Effect of Music Education Using Orff Method
on the Children's Self-control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幼兒教育專攻

金 美 英

金美英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6月 日



審査 委員長



審査 委員



審査 委員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3
3. 연구의 내용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오르프 음악	5
1) 오르프의 역사	5
2) 오르프 음악교육의 목적 및 활동영역	6
3) 오르프 교육법의 특성	7
4) 오르프 교육활동의 단계	10
5) 오르프 악기	13
5) 오르프 교수법	13
2. 자기조절력	16
1) 자기조절력의 개념	16
2) 자기조절력의 발달	18
3) 자기조절력 학습 환경	19
3. 선행연구 고찰	21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측정도구	23
3. 실험설계	24

4. 연구절차	25
1) 사전검사	25
2) 실험처치	25
3) 사후검사	27
5. 결과분석 및 해석	28
IV. 결과분석 및 해석	29
1. 오르프 음악교육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29
2.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30
3.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	32
V. 요약 및 결론	36
1. 요약	36
2. 결론	37
3. 제언	39
참고문헌	41
부록 I	43
부록 II	59
ABSTRACT	62

표 목 차

<표-1> 악기합주	10
<표-2>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성별 구성	23
<표-3> 자기조절력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24
<표-4> 실험설계	24
<표-5> 실험집단의 오르프 음악 교육활동	26
<표-6> 비교집단의 음악 교육활동	27
<표-7> 실험-비교집단의 자기조절력 평균과 표준편차	29
<표-8> 실험-비교집단에 따른 자기조절력 공변량 분석	30
<표-9> 실험-비교집단의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30
<표-10> 실험-비교집단과 성별의 공변량 분석결과	31
<표-11> 실험-비교집단의 자기통제력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32
<표-12> 실험-비교집단의 자기통제력 공변량 분석	32
<표-13> 실험-비교집단의 충동성감소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33
<표-14> 실험-비교집단의 충동성감소 공변량 분석	33
<표-15> 실험-비교집단의 주의집중력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34
<표-16> 실험-비교집단의 주의집중력 공변량 분석	3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유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조절 능력을 갖는다. 그것은 유아가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데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자기조절력은 유아기에 있어 중요한 발달의 한 부분이다. 유아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한된 사고를 극복 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자기조절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기조절력은 유아가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이며 구성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으로 유아가 사회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상이 될 수 있다.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훈련이 필요하며 자기조절 향상 훈련은 문제 해결력, 자주적 학습태도, 자기통제력, 충동성감소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김지아, 2002; 양옥승, 1995).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인 모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놀이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유아들의 놀이 중 흥미 있어 하는 음악활동은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교육의 현실은 유아들의 발

달적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기술적이고 기교적인 방법에 강조를 둠으로써 유아들에게 음악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아들의 음악적 표현이 한정되고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수법을 창안한 오르프에 대한 연구는 유아들의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음악적 소재로 보아 표현 생활이라는 범주에서 유아의 창조적 음악관을 길러주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르프는 1920년대부터 유아의 흥미에 맞게 생활 주변으로부터 나타나는 소재들을 유아 음악교육에 적용하였다.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직접적으로 창작 하고 듣고, 연주하는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유아들의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더불어 유아의 통합적 활동을 추구하였다. 오르프는 음악을 지도하는 목적은 인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종합적 경험으로 이용하는 것 이라고 하여 전인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수법에서 음악교수의 접근은 연극, 창작, 듣기, 분석하기 등을 이론적으로 인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동작을 경험하는 활동 중심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오르프 교수법에 의하면, 음악은 듣는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춤과 언어와 연계성이 있는 통합적 활동이다. 오르프는 음악을 통합적 활동으로 적용하기 위해 말하기, 동작, 노래, 악기, 듣기의 영역으로 나누어 매체를 활용하였다. 오르프 교수법은 유아들이 언어, 동작, 놀이, 노래 등과 같은 음악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리듬, 멜로디, 다성 감각과 화성적인 경험, 음악적인 상상력과 즉흥 연주능력을 개발하도록 개인적인 창조성을 개발시키며 앙상블 활동을 통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오르프의 유아 음악교육론과 교수법 및 음악의 요소인 리듬, 기악합주, 연주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 음악적 요소를 유아의 발달적 측면과 연결한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최정하, 2007).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오르프 음악활동이 유아의 악기적용수업, 전

래 동요수업에 활용,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었지만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기조절력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았다. 오르프 음악활동을 통한 자기조절력 연구가 있다하더라도 자기조절력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고 충동성감소, 주의집중력, 자기통제력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르프 수업을 받은 유아의 자기조절력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봄으로서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오르프 음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오르프 음악교수법을 적용하는 음악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르프 교수법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각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프 음악교육에 대한 문헌 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셋째,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넷째,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서울특별시 지역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유선택 활동시간과 음악교육 시간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오르프 음악

1) 오르프의 역사

대표적인 음악교육가인 칼 오르프(Carl Orff)는 1895년에 독일 뮌헨에서 출생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피아노, 오르간, 첼로, 팀파니 등의 악기를 다루었으며, 그러한 기초적인 기술과 훈련의 결과 16세의 나이에 50곡 이상의 가곡을 작곡하였으며, 5개의 가곡집을 출판하였고, 1912년에는 칸타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완성하였는데 그때까지 그는 작곡이나 화성에 대해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오르프는 뮌헨 고등음악학교(Munchen Akadenmieder Tonkunst)에서 공부를 했다. 1913년에는 일본의 카부키를 소재로 최초의 오페라 희생(Gisei des Opfer)을 작곡하였으며, 이어 한 여름밤의 꿈(Sommernachtstraum)을 작곡하였다(Austin, 1966).

1924년 도르테 귄터(Dorothee Gunter)가 뮌헨에서 음악과, 무용, 체육의 통합교수를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는 데 협력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학교의 음악교사로 일하면서 음악 교육용 작품인 「Orff Schulwerk」를 만들었다. 「Orff Schulwerk」는 동작과 음악적인 즉흥성을 통하여 음악적인 표현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고 여러 가지 악기를 위한 합주곡과 리듬 멜로디의 연습 등이 실려져 있다. 이와 같은 교수활동은 작곡가로서의 오르프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에 큰 공헌을 한 음악교육자로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1927년에는 「첼발로와 관악기를 위한 소협주곡」을 출판하였고, 1937년에는 「카르미나 브라나(Carmina Brana)」를 완성하여 초연하였다. 그 외에

도 「달」, 「현명한 여인」, 「안티고네」, 「아프로디테의 승리」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특히 Maendler와 함께 만든 「쉴베르크(Schulwrek)」는 음악 교육용 작품으로 특유한 리듬교육법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오르프는 음악과 리듬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일로폰은 후에 오르프악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르프와 멘들러는 계속적인 연구로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자일로폰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메탈로폰 등의 오르프 악기를 만들었는데 자일로폰은 건반이 장미나무로 된 것으로 소리가 맑고 고우며, 메탈로 폰은 진동에 의해서 공명 있는 소리가 울리는 특색이 있다(박미정, 1999).

2) 오르프 음악교육의 목적 및 활동영역

오르프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생활에 만연되는 말, 동작, 노래 등이 수반되는 기초적인 음악의 확립을 중시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음악적 경험을 체득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악의 본질을 맛보게 하는 데 있으며, 음악을 통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자심감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원시적인 음악적 요소들과 자연스러운 음악을 통한 움직임, 인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종합적 경험으로 이용되는 것이다(조효임, 1997).

지도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송상경, 1986). 유아들에게 언어, 동작, 놀이, 노래는 하나의 종합체로서 음악적 경험의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리듬과 멜로디의 의미를 몸 전체로 알려주고 음악의 기본요소를 경험하게 한다. 언어의 리듬 형태에서 시작해서 리듬적인 경험을 주며, 어린 시절의 자연스런 노래, 극히 단순한 가락에서 시작하여, 멜로디적인 경험을 주고 반복적인 음률의 연주에서 다성 감각과 화성적인 경험을 하도록 한다. 리듬적이고 멜로디적인 경험에서 음악적인 상상력과 즉흥 연주능력을 개발시키며 감각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창조성을 개발시키고, 앙상블 활동을 통하여 능동적인 참여능력을 개발시킨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오르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하였다(박미정,

1999). 오르프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몸의 움직임, 율동, 타악기 연주 및 악기 탐색, 그리고 언어를 이용한 음률 표현 등의 다양한 활동을 담고 있으며 음악의 기초적인 요소 및 개념인 리듬, 템포, 다이내믹과 이야기를 위한 음향 효과, 이야기를 통한 즉흥 연주, 연기, 언어의 음절과 노래에서 요구되는 프레이즈 개념 등을 경험하고 몸의 움직임, 동작 등에 리듬을 붙이고 반복함으로써 리듬을 쉽게 기억하고 표현하는 센스를 발전시키거나, 몸의 타악기화, 여러 타악기, 음성을 사용한 메아리의 효과를 통해 다양한 표현력을 길러준다. 음의 높고 낮음을 신체표현으로 나타내고 음정의 거리 등을 노래를 통하여 배우며 리듬 받아쓰기, 언어 리듬, 메아리 리듬, 노래 리듬 등을 몸의 부는 타악기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충분히 다룬 후 이것을 듣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언어의 리듬에 타악기로 반주를 하게 노래를 하며, 으뜸음을 페달, 보르둔 반주 등을 통해 연주하며 움직임과 리듬의 이해를 통해 캐논 형식, 2부 형식 등을 배우고 감상을 통해 같은 형식을 찾아보는 경험을 한다.

3) 오르프 교육법의 특성

오르프 접근법의 특성은 탐색과 경험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학생들은 가장 단순한 탐색을 통하여 익히게 된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확대하여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하고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들을 탐색하고 경험하게 된다. 오르프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르프 기초 음악학습의 접근은 음악적 동작을 경험하는 활동중심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음악은 듣는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춤과 언어와 연계성이 있는 통합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교수매체는 말하기(speech), 노래(song), 동작(movement), 악기(instruments), 듣기(listening)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전명주, 1995).

(1) 말하기

음악적 경험의 하나로 동요, 동시와 말하기를 사용한다. 오르프는 말의 패턴에서 리듬활동에서 노래 부르기로 발전하는 것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익히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음악의 자료로 아동들의 생활과 주위 환경에서 쉽게 발견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과 특징 등을 사용한다. 말 리듬의 특징은 유아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까다로운 리듬을 쉽게 터득할 수 있게 한다. 달팽이 라는 시에 말 리듬을 표현해 보는 단계이다. 말 리듬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달팽이

달팽아 달팽아 끼리끼리 놀자
너희 집에 불났다. 끼리끼리 놀자
쇠스랑 가지고 참쌀동무 땀쌀동무
뿔래뿔래 해라 끼리끼리 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팽아 달팽아 끼리끼리 놀 자 너희 집에 불났다 끼리끼리 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쇠스랑 가지고 참쌀동무 땀쌀동무 뿔래뿔래 해라 끼리끼리 놀자

(2) 노래

말과 말 리듬을 익히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노래 부르기와 학습이다. 짧고 간단한 노래를 하며 손뼉 치기를 하고 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음정을 문답식의 대화로 연결할 수 있다. 노래 부르기는 체계적으로 지도된다. 처음에는 ‘솔-미’이며 그 다음에는 ‘라, 레, 도’가 첨가되고 그 다음에 ‘파’와 ‘시’가 소개된다. 노래 부르기는 신체 타악기와 오르프 악기의 반주가 따른다. 반복부는 5도나 8도를 이루는 보르둔(Bordun) 혹은 오스

티나토(Ostinato)를 사용하고 이 보르둔이나 오스티나토에서 유아들이 맘대로 즉흥연주와 창작을 하도록 장려한다.

(3) 동작

율동은 유아들이 음악 혹은 동시나 시를 읽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신체 표현을 의미한다. 오르프의 접근에서 율동은 유아들이 자신의 표현 욕구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율동 학습은 유아들의 놀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발전된다. 노래와 악기연주의 중요한 부분으로 율동이 첨가되며 리듬학습에서 쉬운 리듬은 자연스럽게 모두 신체 표현으로 대신한다.

(4) 악기

유아들의 리듬교육을 위해 오르프는 특별한 악기를 창안하였다. 이 악기들은 음판 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리코더 등이다. 이 악기들의 특징은 유아의 연주 기능을 최소화하여 누구나 연주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음판 악기들은 불필요한 음들은 언제든지 제거하여 필요한 음들만을 가지고 유아들이 연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악기의 사용은 소리의 어울림에 대한 감수성 계발에 강조점을 둔다. 악기를 통한 유아들의 창의성 계발을 모색하고 다성 음악의 개념은 앙상블 연주를 통해서 획득된다. 악기 연주는 물론 모든 음악적 활동은 암기하여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오르프 악기 합주에 사용하는 악기들은 <표-1>에서 처럼 리듬악기와 음판악기로 나눌 수 있다.

<표-1> 악기합주

리듬악기	음관악기
리듬막대, 캐스터네츠 목탁, 봉고, 캐스터네츠 팀파니, 트라이앵글, 봉고	소프라노 리코더, 글로켄슈필 알토 리코더, 알토 실로폰 공명벨

(5) 듣기

오르프 프로그램에서 듣기는 강화되어 있는 데 간단한 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악보를 보지 않고 귀로 듣고 소리나 동작을 표출해 내도록 한다. 즉 듣기를 통하여 박자, 형식, 템포, 다이내믹스, 음색, 음질 등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와 같이 오르프 음악교육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흥미로운 학습을 전개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귀로 듣고 소리나 동작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듣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딱따구리 어디 있나

투톤블럭(교사) - 4/4 다장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딱따구리 어디있나 | 딱딱딱딱 딱 | 딱따구리 어디있나 | 딱딱딱딱딱
 도도도도 도도도도 | 레레레레 레 | 레레레레 레레레레 | 미미미미 미

(유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딱따구리 수박속에 | 숨어있어요 | 딱따구리 수박속에 | 숨어있어요
 미미미파 술술술파 | 미미레레도 | 미미미파 술술술파 | 미미레레도

4) 오르프 교육 활동의 단계

교수매체를 성취하기 위한 음악지도의 단계는 모방, 탐색, 음악 표기, 즉흥연주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악교수의 목표인 기술과 개념에 숙달하게 된다(전명주, 1995).

(1) 모방 단계

모방의 기초과정으로 동시 모방 동작은 쉽게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는 전래로 내려오는 언어게임을 통하여 익힐 수 있는 동작이며, 메아리 모방 동작은 교사가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노랫말이나 몸동작을 유출하여 메아리로 따라하는 방법으로 대개는 노래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중복 모방 동작은 교사가 즉흥적으로 한마디의 제스처나 리듬을 보여준 다음 두 번째 마디를 시작할 때 어린이들이 교사가 한 리듬을 따라 하게 하는 단계이다.

(2) 탐색 단계

탐색은 오르프의 모든 매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말한다. 즉 오르프 교수법에서 ‘탐색’이라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고 매우 단순하며 원시적인 상태에 있는 음악의 요소에서 점차 다듬어지고 복잡하고 세련된 악곡을 체험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 활동에서 학생은, 우선 소리의 탐색을 하게 되는 데,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 인위적인 소리 등 비음악적인 소리의 탐색에서 시작하여, 정제된 소리의 탐색으로 옮겨간다. 여러 악기를 만져보고, 두드리거나 흔들어 보고 딱딱하고 견고한 소리, 부드럽고 온화한 소리의 질을 체득한다.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악기는 반드시 기존의 일반화된 악기일 필요는 없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재의 악기들이 좋다.

음악교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음악적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어린이들을 탐색을 통하여 작곡, 노래, 또는 창작표현 등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듬을 두 배로 빠르게 할 수 있겠니?”, “만

악에 우리가 노래를 부드럽게 부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니?”, “만약 멜로디를 리코더 대신에 자일로폰으로 친다면 어떨까?”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음악을 탐색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3) 음악 표기 단계

오르프 교수 학습에는 악보를 읽고 쓰는 것에 관한 일정한 규정 체계가 없다. 그는 아동들이 음악을 알기 전에 음악의 상징적인 기호인 악보의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것은 언어 습득이 되기 전에 읽기, 쓰기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오르프는 ‘음악 수업은 악보에 대한 이해로 출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 음악 교육에 있어서 ‘악보’와 ‘음계’는 사전 지식으로 당연히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에게 ‘악보 그리기에 대한 학습’, ‘저마다의 재능을 확인하는 학습’, ‘낮선 음악을 따라 부르는 학습’을 요구할 뿐이다. 아동들은 악보를 보고 읽고 쓰기 전에 생각으로 얼마든지 음악을 읽어낼 수 있고, 음악적 소리를 기호화 하거나, 그림으로 표기한 차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음악을 듣고 느낌을 상징적으로 그려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4) 즉흥연주

오르프 교수법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강조되는 즉흥연주는 이전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높은 단계의 음악적 능력으로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모방, 탐색 그리고 악보 읽고 쓰기는 즉흥연주를 위한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모방·탐색·기보와 독보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탐색과정이 이미 배운 음악내용의 요소를 적용해 보는 과정이라면, 즉흥연주는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작해 보는 과정인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유아들이 악기나 신체동작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단계이

다. 즉흥연주의 예는 다음과 같다.

모두 제자리

4/4박자 (다장조) - 글로젠티필






술술술과 미 파파파미 레 미미미파미도 레

모두제자 리 모두제자 리 모두모두제자 리

5) 오르프 악기

오르프의 지도방법에서 사용된 각 악기들의 구조와 사용 가능성에 따라 음판 악기, 박명 악기, 작은 리듬 타악기, 관악기, 관현악기와 발현 악기, 건반 악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조효임, 1990).

오르프의 악기를 각각 고유한 음악적 기능에 따라서 다시 분류해 보면 크게 리듬 타악기, 가락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리듬 타악기는 크게 음높이가 없는 타악기로 흔들이, 클라베스, 심벌즈, 트라이앵글, 우드블럭, 마라카스, 탬버린, 북과 방울 등 이 여기에 속한다. 가락타악기는 일정한 음높이가 있는 타악기와 음판 악기가 있는데 음판 악기로는 글루켄슈필, 소프라노 실로폰, 알토 실로폰, 베이스 실로폰, 메탈로폰, 레조네이터바등이 있다. 현악기는 활로 켜거나 손가락으로 뜯는 악기로서 감배, 피들, 살테리오, 류트, 기타 등이 있다. 관악기로는 리코오더, 소르둔, 크롭호른, 호르라기 등이 있다.

위의 악기로 연주를 할 때에는 같은 악기군 끼리는 되도록 같은 위치에 배치해야 하고 모든 악기를 반원형으로 배치하며 악기 수가 많은 경우에는 교사가 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음높이가 높아지게 배치하며 낮은 악기부터 시작하여 배치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음악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므로 유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6) 오르프 교수법

(1) 오스티나토(Ostinato)

오스티나토는 오르프의 교수법의 중요한 기본적 원리로서 악곡 전체나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정한 음형을 말한다. 음악의 어떤 요소도 오스티나토로 만들어질 수 있고 오르프 교수법에서는 하나의 멜로디나 화음진행, 리듬, 신체표현 등에서 나타나며 또한 이러한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박미정, 1999). 첫째, 신체표현 오스티나토-신체표현 오스티나토 패턴들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유로운 패턴으로 쓰이며, 독주와 반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둘째, 말하기 오스티나토-말하기는 보통 몇 개의 반주 오스티나토가 겹쳐 쓰이면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리듬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어린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억양과 가사에 어울리는 음조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노래 오스티나토-어린이들에게 성악적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최초의 과정이다. 노래 오스티나토는 멜로디와는 구별되는 노래 오스티나토만의 리듬적, 선율적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넷째, 악기 오스티나토-악기 오스티나토 반주는 신체 타악기, 무선울 타악기, 선율타악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하기, 노래의 가사, 리듬 프레이즈, 또는 기악선율에 붙여질 수 있고 즉흥적으로 창작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2) 보르둔(Bordun)

보르둔이란 ‘도’와 ‘솔’의 5도 음역으로 구성된 오스티나토의 형태를 가진 반복적인 패턴을 일컫는다. 보르둔은 항상 5도로 진행하며, 멜로디의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사용한다.

보르둔은 대부분 으뜸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곡에 적용되는 데 6음으로 이루어진 곡에서 ‘파’나 ‘시’가 강박할 때는 사용을 피해야 하며, 경과음(passing tones)일 때만 사용한다. 유아음악에서 보르둔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자신감과 협응력, 간단하고 쉬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하여서도 음악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이다. 보르둔에 사용되는 악기는 주로 베이스 자일로폰과 베이스 메탈로폰이며, 엘토 자일로폰과 엘토 메탈로폰, 그리고 엘토 글로켄스필도 사용된다.

보르둔의 반주 형태는 네 가지 형태이다. 첫째 코드 보르둔(Chord Bordun)의 형태는 같은 악기로 1도(도)와 5도(솔)를 연주하며 두음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베이스 파트에서 연주되며 간혹 알토파트에서 연주되기도 한다. 둘째 레벨 보르둔(Lebel Bordun)형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성부에서 연차적(순차적)으로 연주되는 코드 보르둔이다. 셋째 브로큰 보르둔(Broken Bordun)형태는 1도와 5도 음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강박에서 연차적, 순차적으로 연주되는 것이다. 넷째 크로스오버 보르둔(Crossover Bordun)형태는 이것은 레벨 보르둔과 코드 보르둔이 혼합된 형태의 반주로 각각의 강박에 근음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오르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음률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심미적인 요소를 체험하고 자율적인 참여로 인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는 총체적인 언어교육이요, 음악교육이며, 전인교육이다. 어린이가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어린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나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진 전래적인 놀이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하여 음악적 감각이 형성되어진다. 어린이들은 말하며, 노래하며,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방법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오르프는 말, 동작, 노래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자연스럽게 음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음악 교수법을 적용하였다(조순이, 2001).

이러한 방법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과 놀이와 관련된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시켜 주게 된다. 오르프는 어린이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실질적이며 자연스러울 때, 재미가 있고 감각적일 때, 그리고 의미가 있을 때 그 활동에 쉽게 매료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악활동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놀이, 신체, 악기연주 등이 통합되는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초적이고 자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악활동에 접근하게 된다면 유아들의 음악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오르프 교수법에 기초한 어린이들의 음악활동은 효과적인 음악교육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음악활동 속에서 다른 어린이와 서로 협력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 자신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게 될 것이다(권덕원, 2006).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유아를 위한 오르프 음악활동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자기조절력

1) 자기조절력의 개념

자기조절은 어떤 상황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적 능력, 행동의 강도, 빈도, 지속성 등을 조절하는 능력, 혹은 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을 위한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초기 자기조절의 개념은 자아가 성장해 감에 따라 행동과 언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Vygotsky

(1962)는 자기조절을 사회적 행동, 외부적 억제에 대한 내면화라는 의미로 해석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자기조절이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Mishell과 그의 동료들(1973, 1979)은 자기조절력은 상황적인 압력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우발적인 규칙이라고 보았다. 최근에는 자기 조절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력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정원, 1999).

이러한 자기조절은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Bronson(2000)의 자기조절력이 유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성숙과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발달하고, 유아기 이후의 사회 정서 발달,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는 연구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력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자기조절력이라고 정의한 연구들(Derryberry & Bothbart, 1988; Eisenberg, 1996; Saiovey & Sluyter, 1997)에서 찾을 수 있다(안지영, 1998).

Kopp(1982)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어떤 상황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적 능력과 언어적 행위의 강도, 빈도, 지속성 등을 조절하는 능력, 혹은 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을 위한 행동을 지연 할 수 있는 능력, 외부적 제한 없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Bodrova와 Leong(1996)에 의하면, 자기조절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적절하게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복잡한 인지적 조작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보았다(양옥승, 2002 :재인용). 또한 안지영(1998)은 자기조절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력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Eisenberg(1996)의 연구에 의하면 여아는 대부분 높은 자기조절력을 가지며, 남아의 경우는 낮은 자기조절력을 갖는다. 여아는 상대적으로 부

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한 주의적 조절의 수준을 획득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남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Derryberry와 Bothbart(1988)의 연구에서는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의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친사회적 수준과 연관되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것은 감소시킨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수준은 부정적 정서의 증가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볼 때 여아는 주의적 조절이 높으며, 자기조절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상관있음을 알 수 있다(최정원, 1999). 이상과 같이 자기조절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강조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여 행동을 수정하고, 보다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며 현재의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유보하는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력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력을 획득했다는 것은 사회적 행동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화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아에게 있어서도 자기조절이란 스스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2) 자기조절력 발달

자기조절은 유아의 인지발달과 사회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맷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서는 부모의 양육 형태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이 다르다가 점차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유아가 태어나서 2세 정도가 되면 정체감을 구성하는 자아와 자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체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황과 비사회적 상황에서의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자기조절을 향해 움직여가게 된다. 자기조절 능력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 중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일련의 단계들을 통해서 획득 되는 데 유아기에 좀 더 발달하게 된다(Rorhbart, 1989; 허해옥, 2002).

자기조절 능력은 비교적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2세 이전 유아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지시나 요구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는 데 이러한 순종행동은 자기 통제력의 일차적인 표현이다(Howes & Olenick, 1986). 그러나 이 경우 아동의 통제는 내면화된 자기통제라기보다는 외적 통제에 대한 반응이 강하다. 2~3세가 되면서 본격적인 자기통제가 나타나게 된다(Bullo & Lukenhan, 1990). 이 시기의 유아는 부모의 지시나 금지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안지영, 1998: 재인용).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유아기의 부터 시작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력의 근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며 타인 조절에서 자기조절력으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기조절력은 유아의 사회화와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유아의 사회화를 이끄는 성인과 환경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문연심, 2001).

3) 자기조절력 학습 환경

자기조절력에 대한 동기는 특히 환경적 영향에 약할 것이다. 인지적으로 계획된 동기를 누적적으로 경험한 것은 본능적 요구(음식 먹기, 잠자기 등)를 경험한 영향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다. 환경은 목표를 제공하고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유아에게 가르친다. 합리적인 질서, 규칙 환경에서의 반응은 유아에게, 세계를 예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감각을 발달시킨다. 사회적, 물리적 세계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능력과 통제 감각을 지원한다(Bronson, 2000). 유아로 하여금 자기조절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환경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놀이를 통한 자기-조절력 발달을 말 할 수 있는데 놀이는 유아 내부에 근접 발달 지대를 만든다. 놀이에서 유아는 항상 나이보다 더 성숙하게 행동하고 평상시보다 좋게 행동한다. 유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력은 놀이를 통해 일어나며 놀이의 본질적 특징은 자기-저항, 즉 가까이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둘째, 성인-유아 간 상호작용을 통한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이 있다. 생후 1년 후반기의 유아는 양육자와의 공동 주의집중을 통해 언어 등의 인지적 기능 및 사회적 적응에서 급속한 전이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며 자율성을 점차 획득하면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기 조절력의 출현은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적 이정표가 되며, 또한 인지적 작용의 자기조절력과 수행 능력이 관련된다.

셋째, ZPD(Zone of Proximal Development)내에서의 비계 설정을 통한 유아의 자기 조절력 발달이 있다. 근접 발달 지대는 공유된 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에 이르게 되는 능력의 전이가 일어나는 지역이며, 학습과 발달이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민감지대이나 Vygotsky는 '독자적인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되는 실제적 발달수준과 성인의 지도하에 또는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의 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과의 차이'로서 근접발달지대를 정의한다.

넷째, 자기중심적 언어를 통한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을 들을 수 있는데 자기중심적 언어(private speech)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자신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공공연한 말을 의미한다. Vygotsky는 인지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취학 전 시기의 유아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라고 주장했다(문연심, 2001).

따라서 유아기에 자기조절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것이 발달 초기단계에 투입되어 자기조절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기조절력은 미래의 보다 나은 만족과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여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며 현재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유보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다(유경순, 2001).

3. 선행연구 고찰

오르프의 음악교육을 유아에게 적용한 연구로 이미혜(1995)와 이경신(1996)은 오르프를 어린이를 위한 음악지도법에 관한 연구로 수행하였으며,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말하기, 노래하기, 리듬, 악기, 동작 등을 지도하는 데 있어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박미정(1999)은 오르프의 음악교육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오르프 음악교육에 대한 이론이 유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오르프 교수법의 학습활동 단계 및 교수매체 현장 적용 단계 등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를 하였다.

신혜숙(2006)의 칼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개념 지도방안 연구에서는 초등 1학년 음악개념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선정한 후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음악개념에 대한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오르프 학습활동 단계인 모방, 탐색, 악보 읽고 쓰기, 즉흥연주를 알아보고 교수법과 관련된 음악적 요소를 정리하여 지도하였고 신체를 이용한 리듬지도 또한 음악수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천신현(1988)과 류숙희(1999)는 오르프 음악활동과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 유아의 말 리듬 말을 이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므로 언어생활의 폭도 넓혀주고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찬화(1987)는 Wertsch(198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자기조절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조절에서 자기조절력의 전이가 일어남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발달하였으나 어머니의 참조적 조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찬화(1987)의 연구결과는 Wertsch(1985)의 연구결과와 달랐지만 자기조절력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므로 성인과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창조적 조망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는 오르프 교수법을 음악수업에 적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음악 지도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오르프 교수법을 전래동요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등 오르프 음악교수법에 대한 연구나 자기조절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지만 오르프 음악 교수법과 자기조절력과 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자기조절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효율적인 언어사용과 상호작용, 적절히 조절하는 자기조절력, 자신 활동의 계획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또래들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면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오르프 음악교수법에 따른 유아음악 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치원의 만 5세 유아 34명(남 16명, 여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를 오르프 음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실험집단과 일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비교집단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34명의 유아 중 17명은 오르프 음악교수법에 따른 오르프 음악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17명의 유아는 일반 음악교육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유아 34명을 실험집단, 비교집단, 성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성별 구성에 대한 표는 다음 <표-2>과 같다.

<표-2>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성별 구성

	성별		합계
	남	여	
실험집단	7	10	17
비교집단	9	8	17
합계	16	18	34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Kendall과 Wilcox(1979)가 아동들의 자기조절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조절력 검사지(SRRS : self-regulation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표-3> 자기조절력 하위 요인별 문항 번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통제력	1~10	10	.890
충동성감소	11~20	10	.929
주의집중력	21~30	10	.922
전체		30	.948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은 자기통제력 10문항, 충동성 감소 10문항, 주의 집중력 10문항으로 총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내적 일치도는 .948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검사지 문항은 문항내적 일관성에서 신뢰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각 항목은 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890 충동성감소 .929 주의집중력 .922로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은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 본 연구에 적용된 질문내용은 검사도구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자기조절력 검사지는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3. 실험설계

본 연구는 오르프 음악교육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조절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오르프 음악교육에 따른 자기조절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실험설계

R	O ₁	×	X ₁	×	O ₂	(17)
R	O ₁	×	X ₂	×	O ₂	(17)

R : 무선배정
O₁, O₂ : 사전검사, 사후검사
X₁, X₂ : 실험집단, 비교집단

4.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로 진행하였다.

1) 사전검사

사전 검사는 2009년 3월 2일에서 3일까지 2일에 걸쳐 담임교사와 연구자에 의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 34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력 검사를 1:1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각 집단의 교사들에게 검사지의 작성요령에 대해 숙지시킨 후 실험처치 이전인 현재 상태에서 대상 유아들의 자기조절력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다. 검사지는 교사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배분은 하지 않았다.

2) 실험처치

사전 검사가 끝난 후 2009년 3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에 걸쳐 매주 2회씩 30-40분 동안 오르프 음악활동을 총16회 실시 하였다. 실험은 만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개원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유아들에게는 오르프 교수법을 활용한 오르프 음악교육을 진행하였고, 오르프 음악교육에 참여하는 영역에는 오르프 음악교육에 필요한 오르프 악기들을 준비하여 주었고 오르프 교수법에 의한 말하기, 동작, 노래, 악기, 듣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리듬과 멜로디를 몸 전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모방, 탐색, 음악표기 능력, 즉흥연주의 과정의 단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음악교육은 리듬, 박자, 노래를 배우고 악기연주 단계를 배울 수 있도록 음악수업을 진행하였고 연주에 필요한 악기를 영역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집단에는 16회 오르프 음악교육을 투입 하였고 비교집단은 16회 일반 음악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활동 과정

은 다음 <표-5>과 <표-6>와 같다.

<표-5> 실험집단의 오르프 음악 교육활동

수업차시	활동 내용	준 비 물	주요단계
1	무슨 말일까?	언어카드, 악보, 리듬 막대, 카세트	말하기
2	말 리듬놀이	문장카드, 투톤블럭	동작
3	말 리듬놀이(시계)	악보, 투톤블럭	동작
4	소리의 높고 낮음, 셈여림	투톤블럭, 실로폰	악기
5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리듬막대, 핸드드럼, 동물카드	듣기
6	음의길이 (동물박자, 과일박자)	리듬막대, 동물카드, 과일그림	듣기
7	언어 - 오스티나티	그림 ,악보카드	말하기
8	악기연주	악보, 핸드드럼, 투톤블럭, 멀티톤	악기
9	빠르게, 느리게(생쥐와 달팽이)	실로폰, 소고, 홀라후프	듣기
10	빠르게, 느리게 (과일이름대기)	실로폰, 악보	듣기
11	노래	그림카드, 기호,	노래
12	신체표현	클래식 음악, 리듬막대	동작
13	음감놀이	그림카드, 우드블럭	듣기
14	즉흥연주	막대, 우드블럭, 멀티톤	악기
15	음악 감상	오르프 악기,CD	듣기
16	창작표현	투톤블럭, 손목벨, 봉고, 스카프	동작

<표-6> 비교집단의 음악교육 활동

수업차시	활동내용	준비물
1	리듬치기	날말카드, 우드블럭
2	봄비	탬버린, 악보
3	음감놀이	실로폰, 음계카드
4	요들송	트라이앵글
5	음계놀이	핸드벨
6	전래동요	소고
7	봄바람	리듬막대
8	동물원	동물그림, 음표카드
9	악기놀이	북, 소고, 실로폰
10	씨앗	소리악기, 카드
11	봄의 변화	음악동화, 소리악기
12	나는 새들	딱따구리모자, 우드블럭, 과일카드
13	요리를 해요	요리그릇, 음악
14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악기, 카세트
15	사이좋게 지내요	소리악기, 머리띠
16	악기놀이	가락악기, 악보

실험집단의 오르프 음악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에게는 <표-5>에 제시된 활동을 제공하였고 비교집단 유아들에게는 <표-6>과 같은 활동을 8주에 걸쳐 16회 실시한 후 사후 검사를 한다.

4) 사후검사

오르프 음악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처지가 끝난 후 2009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조절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기조절력 하위변인 총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통제력 10문항, 충동성 감소 10문항, 주의집중력 10문항을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검사 영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α계수를 산출하였다.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평균의 차를 보았고 자기조절력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사전 점수를 통제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보기 위해 공변량 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변량 분석은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요소 외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소들이 작용할 경우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는 분석이다.

IV. 결과분석 및 해석

1.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사전-사후 자기조절력 검사결과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면 <표-7>과 같다.

<표-7> 실험-비교집단의 자기조절력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17)		비교집단(N=17)	
	M	SD	M	SD
사전검사	3.377	.481	3.504	.531
사후검사	4.175	.374	3.792	.745

<표-7>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자기조절력 평균점수 변화는 사전검사가 3.377이었으나 실험처치후의 사후검사에서 4.175로 평균이 0.798점 향상되었다. 반면에 비교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에서 3.504에서 사후검사가 3.792로 평균이 0.188점 향상되어 평균점수의 비교로 본 오르프 음악교육을 한 실험군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실험-비교집단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공변량 분석

	df	MS	F	p
공변인(사전검사)	1	4.215	51.472	.000
실험-비교집단	1	6.319	77.163***	.000
오차	31	.082		

*** $p < .001$

<표-8>을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오르프 음악활동을 하고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 음악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오르프 음악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일반 음악수업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자기조절력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9>와 같이 자기조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9> 실험-비교집단의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17)				비교집단(N=17)			
	남		여		남		여	
	M	SD	M	SD	M	SD	M	SD
사전검사	3.157	.574	3.530	.358	3.356	.585	3.671	.439
사후검사	3.976	.223	4.313	.405	3.574	.780	4.038	.665

<표-9>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의 남아는 오르프 음악활동전의 수업에서 자기조절력 평균이 3.157 이 나왔는데 사후 검사 결과의 평균 3.976 과 비교해보면 0.819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여아는 사전 검사의 평균이 3.530이며 사후 검사의 평균이 4.313으로 이 둘의 차이는 0.783로 나타나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 검사의 남아평균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0.337의 높은 자기조절력을 보였다.

한편 비교집단에서는 사전검사에서 남아가 3.356이며 사후 검사의 결과는 평균 3.574로 0.218의 자기조절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아는 사전검사에서 3.671의 평균이 나왔으며 사후에서는 4.038로 0.367의 차이로 남아보다 여아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비교집단에서 남녀의 차이를 보면 여아가 0.464라는 자기조절능력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공변량 분석을 통해 통계학적 유의도를 살펴보고 집단 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0> 실험-비교집단과 성별의 공변량 분석결과

구분	df	MS	F	p
공변인(사전검사)	1	3.403	40.092	.000
실험-비교집단	1	5.667	66.756***	.000
성별	1	.066	.780	.384
실험.비교집단×성별	1	.011	.127	.724
오차	29	.085		

*** p<.001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10>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실험-비교집단은 $p<.001$ 수준에서 높은 유의도를 보였으나 성별 변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실험.비교 집단과 성별 변인에서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험. 통계 내부에서의 남녀의 차이는 앞 <표-9>에서 평균의 차이는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3. 유아의 자기조절력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실험-비교집단의 자기통제력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17)		비교집단(N=17)	
	M	SD	M	SD
사전검사	3.359	.445	3.511	.510
사후검사	3.994	.384	3.829	.626

<표-11>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자기통제력 평균점수 변화는 사전검사가 3.359였으나 실험처치 후 사후 검사에서 3.994로 평균이 0.645점 향상되었다. 반면에 비교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에서 3.511에서 사후 검사가 3.829로 평균이 0.318점 향상되어 평균점수의 비교로 본 오르프 음악교육은 한 실험군이 유아의 자기 통제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한편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그 결과는 <표-12>과 같다.

<표-12> 실험-비교집단의 자기통제력의 공변량 분석

	df	MS	F	p
공변인(사전검사)	1	2.326	17.083	.000
실험-비교집단	1	3.632	26.671***	.000
오차	31	.136		

*** p<.001

<표-12>를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p<.001$ 수준에서 통제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오르프 음악교육을 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유아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2) 유아의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실험-비교집단의 충동성감소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17)		비교집단(N=17)	
	M	SD	M	SD
사전검사	3.388	.595	3.482	.663
사후검사	4.335	.447	3.818	.906

<표-13>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충동성 감소 변화는 사전검사가 3.388이었으나 실험처치 후 사후 검사에서 4.335로 평균이 0.847 점 향상되었다. 반면에 비교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에서 3.482였으며 사후 검사가 3.818로 0.336점 향상되어 평균점수의 비교로 본 오르프 음악교육을 한 실험 군이 유아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4> 실험-비교집단의 충동성감소의 공변량 분석

	df	MS	F	p
공변인(사전검사)	1	6.734	59.483	.000
실험-비교집단	1	9.666	85.379***	.000
오차	31	.113		

*** $p<.001$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위의 <표-14>와 같다.

<표-14>를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오르프 음악교육을 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충동성감소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유아의 충동성감소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3) 유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15>과 같다.

<표-15> 실험-비교집단의 주의집중력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17)		비교집단(N=17)	
	M	SD	M	SD
사전검사	3.382	.595	3.517	.517
사후검사	4.194	.385	3.729	.752

<표-15>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주의집중력 평균점수 변화는 사전검사가 3.382였으나 실험처치 후 사후 검사에서 4.194로 평균이 0.812점 향상되었다. 반면에 비교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에서 3.517이었으며 사후 검사가 3.729로 0.212점 향상되어 평균점수의 비교로 본 오르프 음악교육을 한 실험 군이 유아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의집중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는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실험-비교집단의 주의집중력의 공변량 분석

	df	MS	F	p
공변인(사전검사)	1	2.798	22.372	.000
실험-비교집단	1	5.538	44.283***	.000
오차	31	.125		

*** $p < .001$

<표-16>를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p < .001$ 수준에서 통제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오르프 음악교육을 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주의집중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유아의 충동성감소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오르프 음악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일반 음악교육에 참여한 비교집단 유아들의 자기조절력 및 각 하위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오르프 음악교육을 받은 유아들의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서 오르프 음악교육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치원 만 5세 유아 34명을 대상으로 연구집단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투입하였다. 실험처치 전의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실험처치 후의 산출된 자료는 SPSSWIN 14.0 의 통계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신뢰도계수, t-검증, 공변량(ANCOVA)분석을 적용하였다.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 집단 간의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프 음악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일반음악교육을 받은 비교집단 유아보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르프 음악교육에 참여한 여아의 자기조절력이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음악교육활동에 참여한 여아도 남아에 비해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오르프 음악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자기조절력의 각 하위영역 모두에서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충동성감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주의집중력, 자기통제력의 순으로 확인되어졌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프 음악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일반음악 교육을 받은 비교집단 유아보다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은 미래의 더 큰 결과를 위해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지연에 따른 자발적인 좌절을 인내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Mischel(1974)의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연구에서 출발하였으며, Mischel의 연구결과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친구들이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도 높았고 불안이나 분노를 견디는 능력도 뛰어나고 학업성취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들이 함께 학습활동을 계획하는 협동학습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최미선(2001) 연구와 일치하며, 주의 집중 훈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김현진(2001)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한 가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활동 즉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언어, 인지, 음악, 신체, 창의성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모든 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르프 음악교육을 경험한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오르프 음악교육에 참여한 유아들이 음악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음악 표현 활동에 있어서 즉흥 창작표현 폭이 활동 경험에 비례하여 넓어졌고 말을 이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리듬말로 표현해 봄에 따라 언어의 폭도 넓어지고, 말 리듬을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었다.

오르프 음악교육의 특색인 리듬교육과 언어, 즉흥연주, 신체표현 등이 음악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전인교육이므로 우리나라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유아들을 위하여 심미적이며 전문성 있고 창의적인 오르프음악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오르프 음악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 여아들이 남아보다 자기조

절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Eisenberg(1996)의 연구와 남아와 여아간의 정서 조절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Derryberry와 Bothbar(1988)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박서정, 2006)에 의하면 위안행동 및 협동행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감정적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며 협동행동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여아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여아가 갖는 사회관계형성 능력이 남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다는 Elkind(1987)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오르프 음악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자기조절력의 각 하위영역 모두에서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충동성감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주의집중력, 자기통제력의 순으로 확인되어졌다.

Mischel(1978)은 자기조절력을 인간이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인지 사회적 능력이라 하였다. 또한 Block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 지금의 만족을 연기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이 없이는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도 할 수 없음을 일축하였다(Funder, Block & Block, 1983). 이러한 자기조절력의 중요성은 유아기에 비롯되어야함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오르프 음악 교육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이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들이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 돌발행동을 하는 유아들이 오르프 교육을 받고 유아들의 자기조절력 각 하위영역에서 충동성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만으로도 오르프 음악교육이 일반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교육관련 교사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음악교육 방법과 음악 교재의 개발 및 오르프 음악교육 활동의 실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오르프 음악교육에 대한 보급과 오르프 음악교육 전문가양성 오르프 음악교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양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르프 음악활동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오르프 프로그램과 교사교육의 지원, 오르프 악기의 보급 등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결론에 비추어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제약성으로 인해 장기간의 실험처치가 불가능하였기에 좀 더 높은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실험처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활동은 유아의 발달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유아의 사회-정서적 특성이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과 5세 이외의 다른 연령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 국 내 문 헌 >

- 권덕원(2006).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p. 46.
- 김계영(2000). "즉흥연주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오르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라(1997).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음악 수업 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8). "칼 오르프와 줄탄 코다이의 교수방법에 의한 유아 국악교육에의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아(2002). "자기조절 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5.
- 김현진(2001). "주의집중 향상 훈련이 첨가된 자기조절학습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숙희(1999). "칼 오르프의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연심(1997).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학술지. pp. 105~124.
- 박미정(1999). "오르프의 음악교육과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적용".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13.
- 송상경(1986). "칼 오르프의 Schulwerk- Musik Fur Kinder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 안신자(1995). "칼 오르프의 음악이 유아의 음악향상에 미치는 영향: 리듬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1998). "유아의 자기능력과 대처능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김혜리(1995). "언어적 계획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15.

- 유경순(2001).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신(1996).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1995). 『칼 오르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지도법에 관한 분석연구』. 진주 전문대학 유아교육연구소 논문집, 18, p. 145-189.
- 이영수(1992). "칼 오르프의 교육철학과 음악교수법".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5.
- 이윤희(1997).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유아기 음악 학습지도 방안: 4, 5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77~200.
- 신혜숙(2006). 『칼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개념 지도 방안 연구』. 학술지.
- 전명주(1995).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정세문(1968). 『Carl Orff의 음악교육론』. 숙음 제 2집.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 장창환(1997). 『초등음악지도법』, 서울 : 삼호출판사. pp. 131~132.
- 조효임(1990). 『Orff 악기의 편성과 연주법』. 서울대학논문집, p. 23.
- 조순이(2002). 『오르프음악교육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pp. 109~134.
- 천신현(1998). "오르프 음악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선(2001). "협동학습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원(1999). "주제 환상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3~158.
- 최정하(2007). "오르프 교수법을 활용한 리듬지도방안 : 초등 4학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해옥(2002). "컴퓨터 주제 인성교육 프로젝트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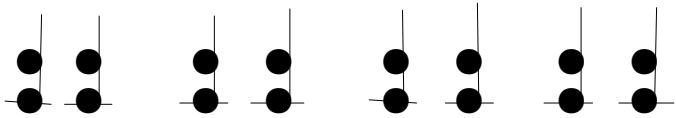
< 외 국 문 헌 >

- Bronson, M. B.(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 Nature & nurture
NY : The Guilford Press.
- Derryberry, D., & Rothbart, M. K.(1988). Arousal, Affect &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o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pp. 958-66.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C., Wosinski, M., Polazzi, L., Carlo, G.,
& Juhnke, C.(1996). the Relation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 67, pp. 974-982.
- Elkind, M. A., Cohen, J. C., Glenwick, D.S., & Roth, J. L.(1987). Relationship
of Scores on the Open Middle Test to Self-control & Academic
Achievement of Inner - city Fourth - grade childrem . *Pereptual &
Moter skills*, 64, pp. 87-93.
- Funder, D.C., Block, J.H., & Block. J(1983), Personaility Processes and Indi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 44.
-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pp. 199-214.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e-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4), pp.1020-1029.
- Mischel, w., & Underwood, B.(1974). Instrumental ideation in voluntarg delay
for symbolically presented reward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 Mischel, w.(1978), How Children postpone pleasure, *Human Nature*. p. 19.
- Vygotsky, L. S.(1962). Thought & Language (Trany, By E. Hartman & G,
vakar), Cambridge,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34).

〈활동 1〉

활동방법	말하게 한다. ④ 동물의 명칭을 손뼉 치며 알아맞히게 한다. ⑤ 음식이름을 리듬막대로 치고 무슨 음식인지 알아내게 한다. ‘무슨 말일까’를 노래하며 악기로 놀이한다.
말하기	<악보1> ♪ ♪ ♪ ♪ ♪ ♪ ♪ / ♪ ♪ ♪ ♪ / ♪ ♪ ♪ ♪ ♪ ♪ ♪ / ♪ ♪ ♪ 내가지금하는 말 / 무슨말일까 / 우리집에같이사는 / 사 - 람 도도도도미미솔 / 파미레도레 / 미미미파솔솔솔파 / 미레도

<활동 2>

활동 명	말 리듬놀이
활동목표	생활언어를 통하여 리듬놀이를 하므로 다양한 리듬감을 이해 할 수 있다.
준비물	투톤블럭, 짧은 문장 3-4
활동방법	① 문장을 충분히 말해본다 ② 문장을 말하며 손뼉을 치게 한다. ③ 문장을 말하며 투톤블럭 연주를 한다. ④ 문장을 말하지 않고 투톤블럭을 치게 한다. ⑤ 투톤블럭 연주를 들려주고 유아가 알아맞히게 한다.
동작	< 말 리듬 문장> 1) ♪ ♪ ♪ ♪ ♪ ♪ ♪ ♪ ♪ ♪ ♪ 우리아빠 오늘 정말멋져요. 2) ♪ ♪ ♪ ♪ ♪ ♪ ♪ ♪ ♪ ♪ ♪ ♪ ♪ ♪ 우리엄마 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3) ♪ ♪ ♪ ♪ ♪ ♪ ♪ ♪ ♪ ♪ ♪ 할아버지 할머니 두손 잡으셨네 4) ♪ ♪ ♪ ♪ ♪ ♪ ♪ ♪ ♪ ♪ ♪ ♪ ♪ ♪ ♪ ♪ 봄바람이 살랑살랑 꽃향기가 향긋하네
즉흥연주	투톤블럭 연주 ♪ ♪ ♪ ♪ ♪ ♪ ♪ ♪ ♪ ♪ ♪ 할아버지 할머니 두손 잡으셨네 자일로폰 연주(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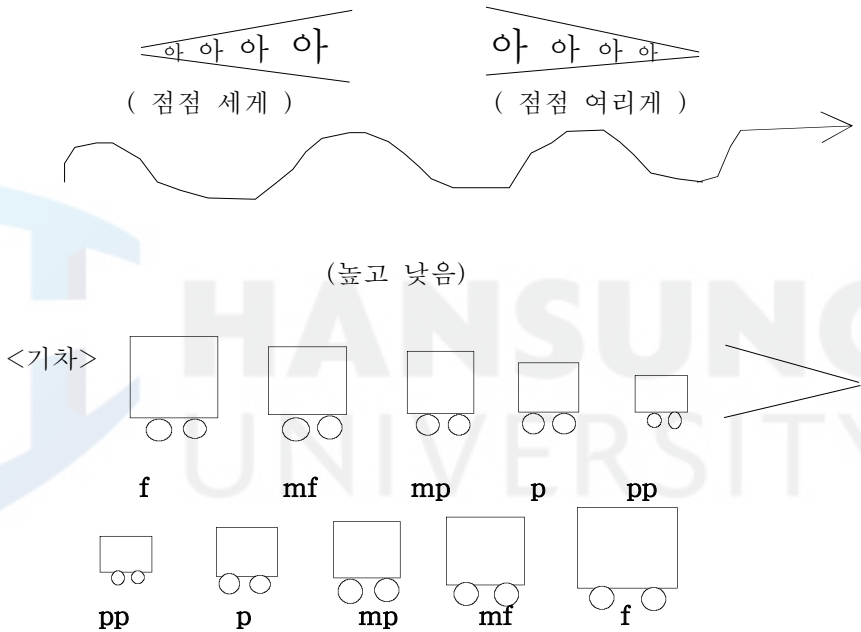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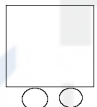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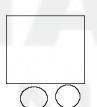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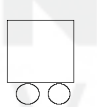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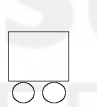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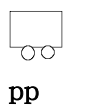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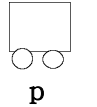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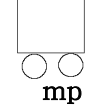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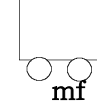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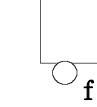
<활동 3>

활동 명	말 리듬 놀이 (시계)
활동목표	생활언어로 말 리듬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표현한 것 들을 노래에 맞추어 연주 할 수 있다.
준비물	악보: 시계, 악기, 투톤블럭
활동방법	① 유아들이 반원으로 앉아 연주할 수 있도록 간격을 띄워서 앉는다. ② 그림카드를 보고 충분히 구음을 소리 내어서 말하게 한다. ③ 투톤 블럭을 탐색 후 연주방법을 알려준다. ④ 투톤 블럭을 치면서 큰소리로 불러본다. ⑤ 울동을 통해서 시계노래를 불러본다.
동 작	연주하는 모습 괴종시계 : 동그란 원을 그려 얼굴로 두 손 모아 내려온다. 작은시계 : 두손 흔들기 손목시계 : 손목 돌리기 알람시계 : 손을 뒤에 대고 흔들며 돌기
악기연주	투톤블럭(시계) 시계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네요 커다란 시계는 땡땡 작은 시계는 똑딱똑딱 손목시계 바빠요 췌각췌각췌각췌각 시끄러운 알람시계 따르르르르릉

<활동 4>

활동 명	소리 높고 낮음 켄여림
활동 목표	악기를 통하여 연주해 봄으로써 음의 높고 낮음 켄여림을 이해 할 수 있다.
준비물	투톤블럭, 실로폰, 큰북, 탬버린, 손목벨, 리듬막대
활동 방법	◎ 목소리를 사용하여 소리의 높고 낮음을 경험하는 활동
신체 표현	◎ 발 구르기로 켄과 여림을 표현한다. 포르테 세게 큰소리로 외치며 행진 리듬막대를 세게 친다. 포르테 세게 여린 소리로 외치며 행진 리듬막대를 여리게 친다.
모방 연주 *켄여림	◎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유아들이 모방하여 표현 하게 한다. ◎ 센소리 f악기(큰북) / 여린소리 P 악기(탬버린, 손목벨, 리듬막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모방 연주 *높고 낮음	◎ 실로폰 연주 <실로폰 고음부 연주>

<활동 5>

활동 명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활동 목표	소리의 강약과 높고 낮음을 알고 점점 세게  와 점점 여리게  의 느낌을 알고 음의 변화를 느껴 볼 수 있다.
준비물	리듬막대, 핸드드럼
신체 표현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높고 낮음) <기차>           f mf mp p pp pp p mp mf f
악기 연주	◎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칙칙폭폭 외치며 표현하게 한다. ▷ 대형북에 5명씩 동그랗게 선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pp-손가락 1개 p-손가락 2개, mp-손가락 3개, mf-손가락 4개, f-손가락 4개 점차적으로 손가락수를 늘려가면서 북을 치게 한다. 이때 손가락 수가 많아질수록 소리가 점점 커져 가도록 한다. (f~p 반대로 연주활동을 해본다.) ▷ 리듬막대연주: 벽면이나 바닥에 그림 자료를 붙여놓고 연주한다.  비가오는 소리를 표현하며 바닥을 리듬막대로 쳐 보게 한다.

〈활동 6〉

활동 명	동물박자, 과일박자
활동 목표	여러 가지 과일과 동물 이름을 박자와 연관 지어 봄으로써 박자의 개념을 익힌다. 과일 그림카드와 동물 그림카드를 리듬막대를 이용하여 리듬을 표현함으로써 즐거움을 갖는다.
준비물	동물카드, 과일카드, 리듬막대
활동 방법	몇 개의 과일카드를 보여주며 그 음질에 맞추어 박수치기 및 걷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 공룡 (♩ ♩)

<활동 7>

활동 명	언어- 오스티나티
활동목표	여러 가지 리듬을 무릎, 손뼉을 치면서 불러본다.
리듬말	♩ - 사과 ♪ - 딸기 4분쉼표 - 쉽 8분쉼표 - 스 ○-과인애플 ♩ -배 ♩ - 트트트트
2/4	리듬과 노랫말을 유아들과 함께 노래를 한 후 손뼉치기 무릎치기를 한다. ♩ ♩ ♩ ♩ ♩ ♩ ♩ ♩ ♩ ♩ ♩ ♩ ♩ <손뼉치기> _____ x x x x _____ x x x x _____ x x x x _____ x x x x <무릎치기> ♩ ♩ ♩ ♩ x x x x ♩ ♩ x x ♩ ♩ ♩ x x ♩ ♩ ♩ x x x x _____ x x _____ x x 손뼉 4 _____ x x x x x x x x 무릎 4 x x x x x x x x _____ *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한다
활동 방법 -동작	

<활동 8>

활동 명	악기연주
활동 목 표	여러 가지 과일 리듬으로 오르프 악기로 리듬을 맞추어 연주해 본다.
준비물	악보, 핸드드럼, 투톤블럭, 멀티톤
활동 방법 *악기 연주	(바장조) 도 레 미 파 솔 미 도 레 솔 솔 도도 도 ♪ ♪ ♪ ♪ ♪ ♪ ♪ ♪ ♪ ♪ ♪ ♪ ♪ 우리집에 왜왔니 왜왔니 왜왔니 무슨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도도도미 솔미도 레솔솔 도도도 ♪ ♪ ♪ ♪ ♪ ♪ ♪ ♪ ♪ ♪ ♪ ♪ ♪ 무슨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00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 반복 8마디 연주 > 멀티톤 쉽 쉽 ♪ ♪ ♪ ♪ 핸드드럼 ♪ ♪ ♪ ♪ 쉽 쉽 투톤블럭 ♪ ♪ ♪ ♪

<활동 9>

활동 명	생쥐와 달팽이
동작을 통한 신체표현	◎ 선생님이 소고를 빠르게 “둥둥둥” 치면은 생쥐 구멍으로 도망간다 ◎ 선생님이 소고를 느리게 치면 “둥둥둥” 치면은 달팽이처럼 기어간다. 유아들이 둥글게 모여서 두 명의 유아는 홀라후프로 생쥐 구멍을 만들어 준다. 선생님이 느리게 칠 때는 생쥐 구멍이 없어지고 빠르게 칠 때만 홀라후프를 준비하고 있는 유아가 생쥐 구멍을 만들어 준다. 남은 친구들은 도망간다.
악기로 표현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과 애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실로폰으로 소리내어 본다. <빠르게> 실로폰 연주: 술 라 시 도 도 레 미 파 <느리게>: 애벌레가 기어가는 모습 * 물음표 4박자씩 소리에 이어준다. * 도 시 라 술 파 미 레 도

<활동 10>

활동 명	빠르게 느리게
활동목표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음악에 맞추어 유아들이 노래와 표현활동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활동방법	◎ 선생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답해 본다. 선생님이 점점 빠르게 이름을 부르면 점점 빠르게 느리게 이름을 부르면 점점 느리게 대답한다. ◎ (유아들이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다장조> ♩ ♩ ♩ ♩ / ♩ ♩ ♩ / ♩ ♩ ♩ ♩ / ♩ 3/4 선생님이 / 부르면 / 대답해봐 요 도레미도 / 솔라솔 / 솔파미레 / 도 2번 반복 (선생님 유아가 한번 따라한다.) ♩ ♩ / ♩ ♩ ♩ ♩ / ♩ ♩ ♩ ♩ / ♩ ♩ 윤지수(느리게) 윤지수(빠르게) 윤지수 - 윤지수 솔 미 솔 솔 미 미 솔솔미미 솔미 ♩ ♩ ♩ ♩ / ♩ ♩ ♩ / ♩ ♩ ♩ ♩ / ♩ 빠르거나 /느리게 / 대답해봐 / 요

<활동 11>

활동 명	노래
활동목표	노래를 통하여 스타카토와 레카토의 느낌을 표현한다.
준비물	그림카드, 기호, CD플레이어
도입방법	①그림 자료를 보며 가사를 도입한다. ②그림 가리키며 어떤 가사였는지 확인한다. ③ 노래를 들려 준다 ④ 0표시를 똑똑 가사에 해당하는 그림위에 붙인다. ⑤ 노래를 부르다가 0표시가 있는 부분을 짧게 끊어서 노래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⑥ 유아들이 불러준다. ⑦ 0붙이는 곳의 위치를 바꾸거나 여러 곳에 붙인 후 노래를 불러 본다. < 노노, 뽕뽕뽕, 똑똑, 간다고> <그림자료> 그림1 00병아리그림 그림2 노래하는 병아리 그림 그림3 눈물흘리는 병아리 그림 그림4 걸어가는 병아리 그림
노래	노노 / 노란병아리 / 뽕뽕뽕 / 노래 부른다. <그림 1번> <물방울 모양> <그림 2번> 똑똑 / 눈물 흘리다 / 언니 따라 유치원에 /간다고 <그림 3번> <그림 4번>
계이름	# # 병아리 라장조 4분의4박자 ♩ ♩ ♩ ♩ ♩ ♩ ♩ ♩ ♩ ♩ 노노 노란병아리 뽕뽕뽕 미미 미파솔파미 레레레 ♩ ♩ ♩ ♩ ♩ ♩ ♩ ♩ ♩ ♩ ♩ ♩ ♩ 노래부르다가 똑똑 눈물흘린다 레미파미레레 미미 미파솔파미 ♩ ♩ ♩ ♩ ♩ ♩ ♩ ♩ ♩ ♩ ♩ 언니따라유치원에 간다고 레레레미파미레도 시레도

<활동 12>

활동 명	즉흥연주 (늦잠자는 개나리)		
활동목표	몸 전체를 사용하여 리듬과 멜로디를 이해한다.		
준비물	동화, 막대, 귀로, 우드블럭		
영역	활동		
말하기	유아들 모두 역할을 정한다.		
동작	동화를 들으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아기와 동작으로 표현하여 본다.		
노래			
악기	바람	3명	빗소리막대
	비	3명	우드블럭
	햇님	2명	귀로
	늦잠자는 개나리	5명	
듣기			

<활동 13>

활동 명	음감놀이 (소리의 방향)
활동 목표	소리에 대한 감각을 흥미롭게 자극시켜주어 예민한 감각발달을 촉진시켜준다.
준비물	수박, 참외, 딸기, 포도, 그림카드 악기:투톤블럭
도입방법	4명의 유아가 나와서 한 장의 그림을 들게한다. 수박, 참외, 딸기, 포도 그림을 간격을 띄워서 유아들에게 들게 한다. 교사는 투톤블럭을 치면서 수박부터 차례로 그림 뒤에서 노래 부른다. (노래) 딱따구리 어디있니 딱따딱딱 딱따구리 어디있니 딱따딱딱 <u>딱따구리 수박</u> 속에 숨어있어요 2절은 참외 3절은 딸기 4절은 포도 <활동 예> 한 유아가 눈가리개 안경을 쓰게 하고 또 다른 유아가 과일 뒤에 숨어서 딱따구리 노래에 맞추어 부른다. 노래하며 우드블럭을 연주하는 유아는 딱따딱딱 하는 노래 가사에 우드블럭 연주를 한다. 눈을 가리고 있는 유아가 소리를 듣고 누구 뒤에 숨었는지 알아맞히게 한다. (노래악보) 우드블럭(교사) 4/4 다장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딱따구리 어디있나 딱따딱딱 딱 딱따구리 어디있나 딱따딱딱 딱 도도도도 도도도도 레레레레 레 레레레레 레레레레 미미미미 미 (유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딱따구리 <u>수박</u>속에 숨어있어요 딱따구리 <u>수박</u>속에 숨어있어요 미미미미과 솔솔솔과 미미레레도 미미미미과 솔솔솔과 미미레레도

<활동 14>

활동 명	음악 감상 - 비발디의 사계 중 봄
활동목표	음악을 듣고 봄의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CD(비발디의 사계 중 ‘봄’)
도입방법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의 소리를 들어보게 한다. 시작부분의 음형이 곡 전체에 걸쳐 몇 번 반복되었는데 이는 봄의 소리를 나타낸 것 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봄의 소리, 새와 시냇물, 천둥번개가 되어 움직여 본다. 천둥소리 표현과 번개, 시냇물, 새싹 등 유아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정하고 표현해 본다.

<활동 15>

활동명	창작표현 -봄을 실을 마차
활동 목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함으로써 감상능력을 키울 수 있다.
준비 물	동화, 악기 - 투톤블럭, 손목벨, 멀티톤, 귀로,
도입 방법	(표현1) -교사가 동화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의 내용을 들려준다. -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말 달리는 소리,빠꾸기소리,염소소리,개구리소리,등을 표현 하는 악기를 정하고 연주하는 친구들과 마차를 타고가는 할아버지를 정한다. -동화 속 이야기에 맞추어 친구들이 맡은 악기를 연주하여 할아버지 마차에 타고 할아버지와 함께 간다. (동화내용) 제목: 봄을 실은 마차 따스한 봄날 할아버지는 봄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마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물길을 지나가다가 “아롱아롱 아롱아롱” 아지랑이 모습이 예뻐서 마차에 실었어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할아버지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빠국빠국 빠국빠국”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봄소식을 알리는 빠꾸기 노래 소리가 아름다워 마차에 실었어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할아버지가 언덕을 지나가는데 풀밭에서 “매헤에- 메헤에-” 염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꺾을 쏘길리가 내 뿔에 앉으려다 미끄러졌어요. 히히히히” 막내 염소가 말했어요. “하하하하 정말 웃습구나 막내야, 나도 우스운 이야기 해줄게.” 왕왕왕왕 꿀벌이 내 뿔을 쏘길래 내가 뿔에 힘을 주었더니 벌침이 부러졌단다. “하하하하” “히히히히” 할아버지는 염소들의 웃음소리가 즐거워 마차에 실었어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할아버지가 논밭을 지나는데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구리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 아기 올챙이 좀 봐요. 뒷다리가 나왔어요.” 엄마 개구리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개구리들의 신나는 목소리를 마차에 실었어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할아버지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감자에 짝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 바위, 보” 하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아 이리 오너라 봄의 소리를 담은 주머니란다.” 할아버지는 마차에 가득 싣고 온 봄의 소리들을 자루에서 하나씩 꺼내어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자 이제 빈 자루에 너희들의 노래 소리를 담고 싶구나” “좋아요 저희가 노래를 불러 드릴게요” “감자의 짝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 바위, 보” “히히히히..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찾았구나.”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자루에 가득 담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숲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지나간 연두 빛 봄 길에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늘높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활동 16>

활동명	악기연주 “모두 제자리”
활동목표	화음의 어우림과 리듬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준비물	실로폰,악보
활동방법	(악보1) “모두제자리” 4/4박자(다장조) - 클루젠슈필 ♩ ♩ ♩ ♩ / ♩ ♩ ♩ ♩ / ♩ ♩ ♩ ♩ / ♩ / ♩ 쉽 솔솔솔 파 미 / 파파파미 레 / 미미미파미도 / 레 모두제자리 / 모두제자리 / 모두모두제자 / 리 베이스 자일로폰 BX ♩ ♩ / ♩ ♩ ♩ ♩ / ♩ ♩ ♩ ♩ / ♩ / ♩ 쉽 솔솔솔 파 미 / 파파파미 레 / 미미미파미도 / 레 모두제자 리 / 모두제자 리 / 모두모두제자 / 리 베이스 자일로폰 BX (악보2) “똑같아요” 클루젠슈필 ♩ ♩ ♩ / ♩ ♩ ♩ / ♩ ♩ ♩ / ♩. 쉽 도미솔 도미솔 라라라 솔 알토자일로폰 AX ♩ ♩ ♩ / ♩ ♩ ♩ / ♩ ♩ ♩ / ♩ ♩ ♩ 도미솔 도미솔 도파라 도미솔 펼침 화음으로 연주하여 본다.

<부록 2> 자기통제 질문지 검사

자기 조절력 검사도구

본 질문지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은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조사

1. 집단별 : ① 실험집단 ② 통제집단

2. 성 별 : ① 남 ② 여

- 응답 방법은 다음 보기와 같이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번호에 0 표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1	2	3	4	⑤	
‘항상 그렇다’에는 5	1	2	3	4	⑤	
‘그렇다’에는 4	1	2	3	④	5	
‘보통이다’에는 3	1	2	③	4	5	
‘그렇지 않다’에는 2	1	②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	①	2	3	4	5	

자기통제력

구분	질 문 내 용	1	2	3	4	5
1	다른 유아들이 초대하지 않는 게임이나 활동에 끼어들지 않습니까?					
2	흥분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3	활동이 자주 변화지 않고 지속적입니까?					
4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활동합니까?					
5	질문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편입니까?					
6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편입니까?					
7	자신이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말만 하는 편입니까?					
8	성인들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편입니까?					
9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당장 가지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편입니까?					
10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까?					

충동성감소

구분	질 문 내 용	1	2	3	4	5
11	차분히 앉아있는 편입니까?					
12	집단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르는 편입니까?					
13	집단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르는 편입니까?					
14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해 몇 번이고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편입니까?					
15	꾸중을 들을 때 부적절하게 말대꾸를 하지 않고 반성하는 편입니까?					
16	자주 말썽을 피우지 않는 편입니까?					
17	일상적인 일이나 해야 될 일을 무시하거나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기는 편입니까?					
18	항상 안정되게 일을 잘 하는 편입니까?					

19	오늘 작은 장난감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내일 더 큰 장난감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일까지 기다리는 편입니까?					
20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집중력

구분	질 문 내 용	1	2	3	4	5
21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 하지 않고 협조하는 편입니다.					
22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편입니까?					
23	자기가 가는 길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편입니까?					
24	질문에 답할 때 신중하게 한 가지 답만을 제시합니까?					
25	자신의 놀이나 일을 할 때 주의가 흩어지지 않고 집중을 잘 하는 편입니까?					
26	신중한 유아라고 생각하십니까?					
27	친구들과 규칙을 잘 지키고 차례를 기다리며 협동하여 노는 편입니까?					
28	이일 저일 옮겨 다니기보다는 한 가지 활동에 몰두하는 편입니까?					
29	주어진 일이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 그만두지 않고 도움을 청합니까?					
30	게임을 방해하지 않는 편입니까?					

< Abstract >

The Effect of Music Education Using Orff Method on the Children's Self-control

Kim, Mi Young
Major in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For the effects and self-correcting capability of Orff education has about children, in this study, some experiments are carried out between children who participate in Orff education and other group takes part in general music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Orff education chosen widely for kindergarten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of how Orff education has the impact on self-correcting capability of kindergartners by their distinction of sex.

To that end, 34 children under 6 years old are grouped and selected for responsible programs.

Based on data produced from it, the results of self-correcting capability difference between Orff education participants and those who take part in general music educ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ing below. First, in terms of self-correcting capability, Orff education participants show higher points than non-Orff education learners. Second, girls have higher self-correcting capability than

boys in the same group of Orff education. Third, the Orff education group has much higher effects on each and every sub-area of self-correcting capability than general music education group does. And from the comparison of the average score of each sub-area of self-correcting capability, it is revealed that impulsivity reduction is the highest, followed by attention and self-control.

